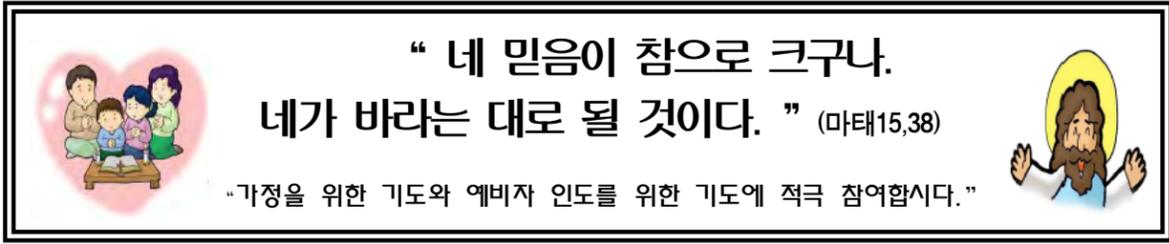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7월 기도지향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김지민(글라라), 김민정(리디아)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하나) 가정

오늘은 “연중 제17주일” 입니다.

오늘 복음인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은 성체성사 안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곧 빵이고, 빵이 곧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와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 말씀 둘 다 함께 먹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으로 나눔 때 하나가 될 것입니다.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문호진(안토니오), 문예나(요안나) 가정
- 마이클 모랜, 이영민(엘리사벳)
대니엘 모랜, 브라이언 모랜 가정

오늘 “구역장 모임” 이 있습니다.

오늘 중심미사 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9일(주일) 점심식사 후

“첫” 금·토요일 신심행사 및 미사

『첫금요일 십자가의 길 및 미사』 : 8월 3일(금) 저녁 8시
『첫토요일 묵주기도 및 미사』 : 8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6	512	498, 501	3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준구(파비아노)	정수한(베 드 로)
	정병훈(보니파니오)	정예찬(미 카 엘)
다음주일	차호섭(요 셉)	안광민(야 고 버)
	차서은(세라피나)	안광희(크 리 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박희영(가타리나)
	박혜정(가타리나)	김준영(요 셉)
다음주일	박혜정(가타리나)	문석찬(요 셉)
	김명은(안 젤 라)	백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김주연 세실리아, 김수연 율리안나, 안현숙 크리스티나
다음주일	한춘희 라파엘라,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이영민 엘리사벳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7월 22일>
- 미사참례 : 75명
- 주일헌금 : \$333
- 교 무 금 : \$149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것을 다 채워 주신다고 믿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정성을 모아 미사를 봉헌 합니다.

성화해설

강릉부 관아(칠사당)
춘천교구,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소재.

교회사가들의 연구와 구전에 의하면 1866년 병인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칠사당(七事堂)’과 ‘임영관 삼문(臨瀛館三門)’인 ‘객사문(客舍門)’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칠사당은 조선시대 관공서로 호적·농사·병무·교육·세금·재판·풍속에 관한 7가지 정사(政社)를 베풀던 곳이다. 이곳 칠사당과 그 뒤편의 객사문에서 우들은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하였다. 임영관 인근에는 영동지역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한 임당동 성당(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457호)이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2열왕 4,42-44 < 먹고도 남을 것이다. >



당 신 의 손 을 벌 리 시 - 어 저 희 원 을 채 - 워 주 소 서.

-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님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 나라 영광을 들어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컫게 하옵소서.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오면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당신께서 그 손을 벌려주시면 목숨 있는 모든 것 원을 채우나이다. ◎
-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서는 진실하시고 이루신 일마다 자애로우시니이다. 당신께 비옵는 누구에게나 진정으로 비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서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

제 2 독서 : 에페 4,1-6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 요한 6,1-1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말씀의 이삭

“자기중심의 이상숭배”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가로 이름이 나기 전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봉급쟁이 남편의 봉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장사가 잘되는지 트럭으로 물건을 사들일 만큼 가게도 커지고 장사도 잘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일에 파묻혀 정신없는 아내를 한참 쳐다보다가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위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됨으로써 다른 구멍가게들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 간 생각한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가게의 물건을 줄이고, 어떤 물건들은 아예 받지도 않으면서 이웃 가게들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찾으려면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하면서 손님을 보내주며,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줄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미우라 아야코는 틈틈이 펜을 들어 작품을 썼고,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함께 하는 삶, 너를 생각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도 넘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 천명의 군중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음식을 내놓아 나누어 주다보니, 모두가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함께 하면 풍부해지고, 나누면 남는 삶이 바로 신앙이 주는 신비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이상 숭배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움켜 쥔 조막손을 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함께 하는 삶, 나누는 삶, 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 사실 말로 듣기만 해도 푸근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넉넉한 사람을 만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저 또한 넉넉함을 담고 있는 그런 사제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릭 프롬은 '현대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진 단 한가지 이유는,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이라는 이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이상숭배에 빠져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도 나눌 수도 넉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은 그 어린아이의 넉넉함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면 풍부해지고, 나누면 남는 삶이 주는 그런 넉넉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미사 중에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일치를 이룹니다. 이 하나됨을 굳건히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번 돈,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능력을 이웃들과 나누어 쓰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나누려는 마음이 가난할 뿐입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는 예쁜 손이 많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나누어진 그만큼, 아니 열두 광주리를 채우고 남을 정도로 나눔의 은총이 충만한 캔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님께서는 빵을 나눠 물고 김사를 드리신 다음, 지위를 잃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요한 6, 11)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함께 사는 법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걸 보면, 거북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따로 바닷가로 올라가서 오백 개에서 많게는 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어미거북은 먼저 모래 속 깊이 구멍이를 판 다음에 백 개 정도의 알을 무더기로 낳습니다. 그런 다음 모래를 끌어 모아 그 위를 덮고 이런 식으로 열 차례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로 낳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모래 웅덩이를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새끼 거북이들은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빠져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덩이에서 막 깨어난 새끼들 가운데 꼭대기에 있는 거북이들이 먼저 천정을 파고 가운데 있는 거북이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새끼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시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살겠다고 바둥거렸다면 새끼 거북이들은 다함께 죽을 수도 있을텐데 협력을 통해 구덩이에서 나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디다케의 전례 가르침

디다케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은 후반부에 나오는 전례와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더욱 뛰어난다. 제7장은 세례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푸시오.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충분치 못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마에 세 번 부으시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세례는 흐르는 물, 즉 강이나 샘에서 완전한 침수(沈水)로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물(生水)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 안에 새로 태어난다는 세례의 의미와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흔히 실시하는 이마에 물을 세 번 붓는 세례의식이 사실은 모든 여건이 불가능 할 때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점점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비자들이 증가하여 단체로 세례를 집행하기가 곤란해지고, 부활절에만 거행하던 세례성사가 겨울철이나 다른 시기에도 이루어지고 적당한 강물이나 샘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려워진 관계로 쉬운 예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제9장에는 미사의 성찬기도문이 나오며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자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찬 전례를 하기에 앞서 자기 잘못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규정(14장)은 오늘의 미사 시작부분에 바치는 참회의 예절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다교 전통에 매여 있던 그리스도교가 점차 유다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 문헌에서 볼 수 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하느님께 예배를 바치는 유다교의 오랜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 다음날”을 주님의 날(主日)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거행하였다(14장).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결하여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을 하던 유다교의 전통대신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8장).

그리고 하루에 세 번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규정하는데(8장),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세번 바치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도(신명기 6, 4-5이하) 대신에 신약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 즉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태 6,9이하)를 바치게 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주님의 기도문 안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오늘날 미사 때에 주님의 기도 끝에 바치는 구절이며, 후대에 쓰여진 성서 고사본의 마태 6,13절에도 나오는 구절이다. 주님의 기도는 아침기도 때와 미사 때, 그리고 저녁기도 때에 바치는 전통이 있다. 그런 이유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 기도에도 주님의 기도가 포함된다.

-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청주교구) 3